CEO 시장에 유력인사 강력 도전

정종득 3선 자신감 속 민영삼씨 등 8명 공천경쟁

홍영기 다크호스 부상…한나라·민노당도 출사표

■목포시장 입지자

민선 5기 목포시장 선거의 초기 구도는 2일 현재 정종득(69) 현 시장에 9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정 시장 외에 민영삼(50) 전 당 부대변인, 이상열(57) 전 국회의원, 장복성(48) 목포시의회의장, 정영식(64) 전 행자부 차관, 최기동(60)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있다.

배종호(49) 일자리방송 사장도 방송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당적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복당 신청을 하면 즉각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간주된다.

한나라당에서 천성복(47) 목포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에서 박기철(45) 목포시당위원장이 각각 출마를 검토 중이며 특히 홍영기(54) 전 서울경찰청장도 최근 후보군에 합류, 민주당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건설사 CEO 출신인 정 시장은 전태홍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치러진 2005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정 전 차관을 이기고 시장이 됐다가 지난 2006년 치러진 4기 지방선거에서는 역시 열리우리당 소속인 김정민 목포대 교수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5년여 동안 낙후의 대명사였던 '뒷개' 북항을 서남권 중심항으로 개발하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우선 "4년만 더 하면 목포를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도 4년만 더 하면 성과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또 "2014년까지 무안반도 통합은 물론 해남·영암·진도까지 포함하는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의 선구자가 되겠다"며 3선 도전의 이유를 밝혔다.

정 시장과 각을 세우며 가장 활발하게 지역민과 접촉하고 있는 후보는 민영삼 전 부대변인. 지난 95년 서울시의원을 지내는 등 중앙 무대에서 25여년간 당료와 공직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중앙인맥이 풍부한 것이 장점. 또 지역에서도 지난해부터 왕성하게 활동, 인지도도 상당 수준으로 높였다.

민 전 부대변인은 "무조건식 개발정책보다는 목포의 자산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문화시장이 되겠다"며 "시청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독선과 독주를 지양하고 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홍일 의원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후보. 덕인고에서 10년 동안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청년회의소(JC) 회원들도 든든한 버팀목이다. 최 전 의장은 "오랫동안 민주당 지켜왔고 골목골목을 샅샅이 알고 있는 순수 목포통인 내가 목포의 전환기에 새 장을 열어나가겠다"며 "앞으로 목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탄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안 출신으로 향우회의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왔던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도 최근 출마의지를 확고히 하고 목포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홍 전 청장은 현직인 경찰공제회 이사장직을 조만간 정리하고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홍 전 청장은 "정치가 험난한 길이어서 가족들이 반대, 고민이 많았지만 고향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업무보고식' 또는 '잡탕식'이 아닌 획기적인 목포 발전 방향을 가지고 시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KBS 뉴욕특파원 출신의 배종호 일자리방송사장도 신중한 자세로 출마를 검토 중이다. 배 사장은 매주 1회 목포 극동방송 프로그램 진행과 목포지역 교회 순회 간증 등으로 지역민과 교감하고 있지만 조만간 주민과 접촉 범위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배 사장은 "출마 권유가 쇄도하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과 정 시장의 행보, 시민의 뜻을 세심히 살펴서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18대 총선에서 실패한 이상열 전 의원도 최근 민주당 복당을 계기로 출마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뭐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당원과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출마를 강권하고 있으며 이 전 의원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시 무소속이던 박지원 의원에게 패배한 정영식 전 차관도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마를 검토 중이다. 주변에서는 정 전 차관이 서울 성균관대학교에 초빙교수로 출강하는 중에도 매주 1~2일 목포에 내려와 무안동의 서남권발전포럼 사무소와 유달공원 등을 찾아왔기에 조만간 출마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복성 현 목포시의장도 패기와 15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장 의장은 95년부터 4번 연속 목포시의원에 당선됐으며 7대 전·후반기 의장, 8대 후반기 의장을 맡는 등 돋보이는 의정 활동을 펼쳐 목포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7% 득표에 그친 천성복 목포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에서는 6.59%를 얻은 박기철 목포지역위원장이 각각 10% 득표율을 목표로 출마를 검토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장 입지자 〈가나다 순〉

민영삼(50)	박기철(45)	배종호(49)	이상열(57)	장복성(48)	정영식(64)	정종득(69)	천성복(47)	최기동(60)	홍영기(54)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입당예정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당 입당 예정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목포시당위원장	일자리 방송 사장	전 국회의원	목포시의회의장	전 행자부차관	목포시장	목포시당위원장	전 목포시의회의장	전 서울경찰청장

■쟁점&변수

①박지원 국회의원 의중은
②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
③목포고 선·후배 경쟁 승자는

6·2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정종득 현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쟁점과 변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시장의 확고한 조직 기반은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 뿐 아니라 모든 후보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하지만, 아직 민주당 공천제도에 따라서는 한번 해볼만한다는 것이 다른 후보들의 생각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당헌·당규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상태. 더욱이 정세균 대표 측근들은 시지역과 광역시 구지역에 상당 부분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도 최근 "목포에는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목포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면 고령에 3선 도전의 정 시장이 불리할 것이란 후보들의 바람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부정이나 부패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압도적 1위 후보를 밀어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지역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의 의중도 변수다. 박 의원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할 때 박 의원과 정 시장은 돈독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정 시장의 공천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 시장에 유리한 상황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연대도 예상된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로 일거에 경선구도를 바꾸는 전략이다. 이상열 전 의원은 "아직은 협의한 바 없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으며 정영식 전 행자부차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정종득·정영식·홍영기·민영삼·배종호 후보 등 5명이 목포고 선후배여서 동문의 지지가 누구에게 쏠릴 지도 관심이다.

정 시장을 겨냥하는 '이슈 파이팅'도 선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후순위 후보들의 카드다. 정 시장은 재임기간 큰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민영삼 부대변인은 "겉치레 행정과 대형사업에 수십억원씩 낭비, 시 재정상태가 빚더미로 멍들었다"며 시 재정상태를 공격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도의원 입지자

무주공산 2곳 등 지역구 고르기 끝
4개 선거구에 10명 표밭갈이 분주

6·2 지방선거에서는 목포에서 4명의 전남도의원을 뽑는다. 지난 선거보다 2명이 많아 입지자도 크게 늘었다.

한 때, 무주공산인 지역구가 두 군데나 있어 지역구 선택을 위한 눈치보기가 치열했지만 최근 선거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구 고르기가 끝났다.

현재까지 4개의 선거구에 모두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입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1선거구에는 (사)전남청소년교향악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정호(47) 도의원과 목포민주청년회장인 강성휘(43)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강 부의장은 3선 시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준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75%의 지지율로 전국 1위를 기록한 황 의원은 이번에 3선에 성공,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생각이다.

제 2선거구에는 권욱(44) 홍일학원 기획실장과 목포남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전금숙(52) 목포시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선택에 고민을 거듭하던 3선 시의원 문창부(5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증센터 전무이사가 최근 경쟁에 가세했다. 권이담 전 목포시장의 둘째 아들인 권 실장은 두 번의 선거 실패를 뒤로 하고 교육과 환경운동을 의정활동과 조화시킨다는 생각이다.

조명제(51) 전남지사 정무비서관이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제 3선거구에는 목포시장 도전에서 방향을 바꾼 이호균(48) 도의회 부의장과 선거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던 양광일(52) 안전실천연합회 정책위원장이 가세해 3각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조 비서관은 30년 가까운 당 생활, 양 위원장은 20년 사회단체활동이 각각 자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 부의장은 목포과학대학총장을 맡고 있다.

제 4선거구에는 박지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지역을 관리하는 김탁(48) 전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조심스럽게 출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아파트 공동체운동만 10년 이상 해온 김준형(49) 목포시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강성휘(민·43)	목포시의회 부의장
	황정호(민·47)	전남도의회 의원
2	권 욱(민·44)	홍일학원 기획실장
	전금숙(민·52)	목포시의원
	문창부(민·52)	중소기업진흥센터 전무이사
3	조명제(민·51)	전남지사 정무비서관
	양광일(민·52)	안전실천연합회 정책위원장
	이호균(민·48)	전남도의회 부의장
4	김준형(민·49)	목포시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
	김 탁(민·48)	박지원 후원회 사무국장